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

-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진행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G. F. Händel의 Oratorio "Messiah" II·III로 지휘 백경화 권사, 파이프오르간 전지희 집사, 챔발로 김진이 성

도, 팀파니 유주일 안수집사가 담당하며 독창으로 소프라노 김은정, 알토 양계화, 테너 오영인, 베이스 나한유 선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20(월)-11.25(토) 새벽 5:00-6:00

지난 10월 8일(주)부터 시작한 2023 사명자대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내 안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기도 드리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담당 찬양대>

월	화	수	목	금	토
가브리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은빛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시온찬양대	베들레헨찬양대

-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

대입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대입수능 당일 11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 부터 수능 마치는 시간 까지 교회에서 종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험생 자녀나 손자녀를 둔 학부모와 조부모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홀입니다.

시간	과목	순서	인도자
8:40-10:00	1교시 국어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손달익 목사 장석남 목사
10:30-12:10	2교시 수학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조원영 목사 김익환 목사
점심시간			
13:10-14:20	3교시 영어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현종필 목사
쉬는 시간			
14:50-16:37	4교시 한국사 사회 과학 탐구	찬양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최종국 목사
쉬는 시간			
17:05-17:45	5교시 외국어 한문		개인기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스테반회 특강 -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11월 25일(토) 오후 4시 30분



김병연 교수

-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경제학부)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현)
-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역임)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역임)
-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간사(역임)

스테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는 2023년 을 마감하면서 서울교회 전교인을 대상으로 11월 25일(토) 오후 4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신 김병연 석좌교수를 모시고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이 시대의 한반도에 대해 고민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고민하는 사람들

(마 19:23-30)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곧, 이 말이 진실인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꼭 내가 해야 할 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 7:14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고민과는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1. 한 부자 청년의 고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6절) 이에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매우 촉망 받는 정치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위 정치가였으며 청년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들의 꽃처럼 말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 부자 청년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발굴하면 수많은 부장품들이 발굴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지상에서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믿었던 당시의 종교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특혜와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헛된 세상일에 젊음 낭비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21절). 모두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민 많은 청년에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 문턱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민은 하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물질주의자나 유물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인이 무신론자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돌아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영생이란 막연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

니다.

2. 제자들의 고민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지켜보던 제자들도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등을 돌려 돌아가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탄식하시듯 나타나 비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어려우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의문과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26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할 욕심 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지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공세를 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욕심에서 해방 시켜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의 척도는 가진 분량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 개념의 문제입니다. 내게

속한 소유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요 나는 그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그는 천국가기 어려운 부자가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눅 4:6).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나타나 비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성령에 이끌리어 사랑의 따뜻한 영혼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청지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공세를 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욕심에서 해방 시켜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3.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고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27절). 세 번째 고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엄청난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결산해 보니 불확실한 미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성실하라고 하셔서 성실했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고 봉사하라 하셔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리 살펴봐도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28,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넘치게 축복하실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건강한 믿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 미래는 어찌 되는지.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고민의 정답이십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고민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서울교회의 젊은이를 위하여



김영선 안수집사
(2023 사명자대회
안내분과)

지난 32년간 서울의 중심인 대치동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 온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상처인 교회의 분쟁과 유행했던 질병으로 우리 서울교회는 수년간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새로운 리더십 손달의 위임목사님을 맞아 급속히 안정을 찾았고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의 성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젊은 청년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 주며 이를 해소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서울교회가 시작한 젊은이 예배(3부 예배)를 통해 기존의 형식과 격식을 배제하고 보다 자유로우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예배

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무심코 들려 성령을 입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 들이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 사명자대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청년, 방황하는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서울교회의 젊은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채교천 안수집사
(교구)

암기에 자신이 없는 저에게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몇 번에 걸쳐서 사약을 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하고 나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시 외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주석도 찾아보고 못하는 영어 성경도 보고 하며 암송의 두려움을 달랬습니다. 다른

분들의 반도 안되는 분량의 구절들이지만 처음 며칠은 두꺼운 사전을 외우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같이 하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겹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기를 잘하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



쌍히 보셨는지 너무 빨리 전 구절을 암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오랫동안 연습을 중단하고 당연히 까먹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차 중간 점검하는 날 당연히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다른 분들이 보는 앞에서 암기하였던 구절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낭패스럽게도 몇 구절 외우지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전혀 기

역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타깝게 힌트 단어를 불러주는 대표 집사님의 보람도 없이 입술은 닫히고 혀는 굳어졌습니다. 중간에 테스트를 그치게 하고 다시 열심히 하라는 꾸중 섞인 격려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첫 구절부터 외우기를 아침·저녁 반복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믿음도 성경암송과 같구나! 하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또한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멍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발톱을 세우며 으르렁 거리는 젊은 사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 하반기 성경대학을 마치며



신약의 파노라마 반을 마치며(22명)

차영도 최형열 전인숙 김찬진 채교천 남태영 이경선 송정윤 석상화 나현주 유묘중 조정옥 오충례 이난희 박영실 김정희 김정미 양계화 위성남 임미경 한명자 김인아



에스라·느헤미야 반을 마치며(11명)

최형열 차영도 채교천 김찬진 나현주 전인숙 노애리 송명원 남재은 조상희 남태영

신약의 파노라마 반을 마치며

차영도 장로	신약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권사	신약을 중요한 사람, 지리,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맥을 짚어 공부하게 되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인숙 권사	신약을 역사적 순서로 이해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유묘중 권사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고 신약의 골격을 파악하였습니다. 파노라마 모션을 따라하기 어려웠지만 포인트 내용이 쉽게 기억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섬기신 손길도 감사합니다.
위성남 집사	신약의 전체 숲을 보게 해주신 강좌였습니다. 신약모션은 아쉽게도 연습이 부족했지만 종강 후에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석상화 권사	이 강좌로 성경과 복음서적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수업으로 인해 독서의 지평을 더 넓게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옥 권사	장석남 목사님 신약 말씀 은혜받았습니다. 말씀에 자신이 죽는 것도 순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김인아 권사	2023년 신약의 파노라마 수업을 장석남 목사님의 열성적인 강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유를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태영 권사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신약의 흐름을 보다 이해하게 되었고, 조금 더 심도깊은 성경의 이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명자 권사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모션을 통해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정미 권사	신약의 흐름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찬진 권사	400년 침묵시대를 지나 예언하신 대로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강림!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확장하시니 할렐루야!
채교천 안수집사	신약을 잘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형열 장로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 내부와 외부로 뜻있게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부의 얽매이기 쉬운 것, 외부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려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오직 인내로써 달려가 아름답고 멋진 파노라마를 만들고 싶다.
양계화 성도	신약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어렵지 않게 쉽고 단순하게 풀어가며 각 흐름들 속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들 또한 마음에 심겨진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에스라·느헤미야 반을 마치며

차영도 장로	하나님의 큰 도움과 위로로 주님의 백성이 방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큰 도움과 위로로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형열 장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 싸우라 권면한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공동체 의식의 재건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진 권사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는데 나누어졌다는 사실도 새롭고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영적인 종교개혁도 이루어졌다. 최종국 전도사님으로 시작하여 최종국 목사님으로 큰 수고하심 큰 박수를 보냅니다.
채교천 안수집사	이방을 떠돌며 유민으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원하는 은혜를 잘 이해하고 분명히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태영 권사	하나님의 큰 도움과 위로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매주 열심히 준비해서 열강해 주신 최종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인숙 권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며 준행하며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며, 또한 교회가, 내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끊임 없이 개혁과 새로 태어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현주 권사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인간의 죄성의 반복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시간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회개의 시간도 반복되어야 하는 것을 이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마음에 새깁니다.
노애리 집사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느 2:4)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느 2:8) 나의 모든 일의 앞 뒤를 곧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도우신 은혜를 평생 새기길 원합니다.
송명원 집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재은 집사	구약성경 전체를 훑은 듯 유익했습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을 회개하고, 개혁하고, 재건해야 할지 되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Soli Deo gloria!!
조상희 집사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반기 سالم경로대학을 마치며(33명)
 유덕자 김명자 김경숙 이화숙 박복순 정복순 서정현 최창화
 김정희 김홍두 김숙자 심상필 윤용선 오영례 곽선자 손태현
 최임수 최형열 최죽희 전용순 김찬진 이봉규 이영옥 조한나
 이인숙 고정숙 이용자 나옥녀 황재연 황선희 이경선 장석만
 이은상



한학기 수고하신 교사분들



워십체조반



탁구반



바둑반



손뜨개반



미술반



보드게임반

영동시찰회 주관 친선 탁구 대회 개최

1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강남노회 영동시찰회 산하 각 교회 대항 탁구 대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목사님을 포함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도 참석하실 예정이며, 교회간 친선을 위한 탁구 대회이므로 탁구를 치시는 성도님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순서와 복식팀 구성은 추첨으로 진행되며 참석자에게 상품(상금)과 참가자 전체 기념품과 간식, 식사가 제공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사무국 또는 이민호 장로(010-4178-045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9시부터 연습 가능, 오후 2-3시 종료 예정)
- 장소: 할렐루야 탁구장 (대치역 7번 출구 푸림빌딩 지하)

* 주차는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로 이동

2024년 청년부가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2024년 2월 8일(목)-13일(화)

2016년 1월 미얀마 단기선교 이후로 8년 만에 청년부에서 단기선교를 준비합니다. 청년의 때에 누려야 하는 귀중한 선교의 도전과 훈련, 사명을 회복하려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2월 8일(목)-13일(화)
(설 명절 연휴 기간)

- 장소: 필리핀 마닐라 (박종민·김선화 선교사)

- 선교 준비

11월 말-12월: 선교훈련 및 기도

1월-2월 초: 단기선교 사역 준비

- 첫 모임: 11월 25일 (토)

- 신청 기간: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청년부 현종필 목사님 혹은 장윤기 안수집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2001년 서울교회 1기 단기선교팀 - 태국 산지족 전도와 교회 건립 사역

